

스포츠 경기 풍성한 추석... TV 중계로 '집관' 즐기자

30일 시작되는 올해 추석 명절 연휴에도 어김없이 국내의 스포츠 행사들이 풍성하게 펼쳐진다.

특히 올해 추석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민족의 대이동'을 자제하자는 사회적 분위기에 만류 속에서 TV로 스포츠 중계를 보며 연휴를 보내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현명한 '연휴 계획'일 수 있다.

국내에서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는 민속 씨름과 프로야구, 프로축구가 안방 팬들을 찾아간다.

▶가을잔치 앞두고 치열한 프로야구 순위 싸움이 한창인 프로야구는 3위 자리를 놓고 kt wiz와 LG 트윈스가 10월 2일부터 수원에서 사흘간 더블헤더 포함, 4연전을 치른다. 28일 현재 kt는 6승 1무 50

패로 4위 LG(65승 3무 51패)에 1계급 차로 앞섰다. 맞대결 성적에서는 LG가 6승 5패로 우위다.

최하위 한화 이글스에 연이어 탈미를 잡으며 위기에 빠진 5위 두산 베어스는 29일부터 대전에서 한화와 3연전을 벌인다.

두산은 6위 KIA 타이거즈에 1게임 차로 쫓기고 있다. 한화의 때문에도 당하면 두산의 고통은 더 커진다.

두산은 한화와 3연전을 치른 뒤 10월 2~4일에는 잠실에서 KIA와 3번 연속 맞붙는다. 5위 자리의 주인을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승부다.

▶골프 탈출 전쟁 프로축구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은 울산 현대와 전북 현대가 승점 51로 같고 다득점으로 1, 2위가 나란 선두

순위싸움 치열한 야구·축구... 연휴동안 격돌 이어져 부상 이탈 손흥민 대신 황희찬·이강인 '득점포 조준' 씨름·골프·테니스·당구 등 취향따라 골라보는 재미

경쟁이 치열하다.

울산은 10월 2일 상주와 만나고, 전북은 10월 3일 포항과 격돌한다. 두 경기 결과에 따라 선두 자리가 바뀔 수도 있다.

더불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0월 4일에는 '생존왕' 인천 유나이티드가 수원 삼성을 상대로 2연승을 노리고, 꼴찌로 추락한 부산 아이파크는 FC서울과 격돌해 최하위 탈출을 노린다.

▶모래판의 제왕 가리는 씨름

명절에 빼놓을 수 없는 씨름. 위대 스포츠약 추석 장사대회가 29일부터 강원도 영월스포츠파크에서 펼쳐진다.

남자부 4개 체급과 여자부 3개 체급에 걸쳐 열리는 이번 대회는 추석 당일인 10월 1일 남자부 태백장사 결정전이 열리고 2일 금강장사, 3일 한라장사에 이어 4일 백두장사 결정전이 치러진다.

외국에서도 유럽축구, 골프와 테니스 등 다양한 경기들이 열기를 내뿜는다.

▶손흥민은 쉬어가고... 황희찬·이승우·이강인·황의조 출격 준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뛰는 '손세이셔널' 손흥민은 부상으로 올해 한가위 연휴에 출전이 어려워졌다.

손흥민은 27일 열린 뉴캐슬과 경기 도중 햄스트링을 다쳐 30일 열리는 첼시와 카라바오컵 16강에 출전할 수 없다. 손흥민은 10월 2일 마카비 하이파(이스라엘)와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10월 5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프리미어리그 경기에도 결장할 전망이다.

하지만 황희찬(라이프치히), 이승우(신트트라위던), 이강인(발렌시아), 황의조(보르도)는 모두 10월 4일에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골프·테니스·당구 눈길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쇼파이트 클래식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샌더슨 팜스 챔피언십에는 한국 선수들이 '한가위 샷'을 준비하고 있고, 테니스 메이저 대회인 프랑스오픈은 연휴 기간 내내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스트로크 대결로 코트가 뜨겁게 달궈질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당구(PBA)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무관중으로 'TS샷푸 PBA-LPBA 챔피언십 2020'을 개최한다.

이번 대회를 통해 LPBA 무대에 데뷔하는 한국 아마추어 여자 당구 3쿠션의 최강자 김민아가 프로에서 어떤 성적을 남길지가 관심사다. 연합뉴스



LA 레이커스 나와라 미국프로농구(NBA) 마이애미 히트가 28일(한국시간)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어드벤처스 아레나에서 열린 2019-2020 NBA 플레이오프 동부 콘퍼런스 결승(7전 4승제) 6차전에서 보스턴 셀틱스에 125-113으로 승리하며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했다. 6년 만에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한 마이애미는 LA 레이커스와 챔피언 자리를 놓고 격돌한다. 연합뉴스

PGA 투어 더 CJ컵 세계 TOP 총출동

10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더 CJ컵(총상금 975만달러)에 세계 랭킹 5위 이내 선수들이 전원 출전한다.

CJ그룹은 28일 올해 대회에 출전이 확정된 선수들의 명단을 발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더 CJ컵에 나오는 주요 선수 명단에는 세계 랭킹 1위 더스턴 존슨(미국)을 비롯해 2위 온 팜(스페인), 3위 저스틴 토머스(미국)와 4위 로리 매킬로이(북아

일랜드), 5위 브라이슨 디샬보(미국) 등 '톱5'가 한 명도 빠지지 않았다.

토머스는 제주도에서 열린 2017년 1회와 2019년 3회 대회 우승자다.

이 대회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제주도에서 열렸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 등의 문제로 인해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새도 크릭 골프장에서 10월 15일에 개막한다.

세계 5위 이내 선수 가운데 토머스를 제외한 4명은 이번이 첫 더 CJ

컵 출전이다.

더 CJ컵에 처음 나오는 매킬로이는 "지난 몇 년간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린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올해 US오픈에서 우승하며 최근 상승세가 돋보이는 디샬보도 이번 대회 흥행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번 대회에는 총 78명이 출전한다. PGA 투어 페덱스컵 포인트 상위 60명과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5명, 아시아투어 1명, 세계 랭킹 한국 선수 상위 3명, CJ 초청 선수 9명으로 구성되며 컷 탈락 없이 4라운드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류현진·최지만 투타 맞대결 '초읽기'

내일부터 MLB 포스트시즌 김광현 팀내 3선발 맡을 듯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가 28일(한국시간) 정규시즌을 모두 마무리 짓고 30일부터 포스트시즌 일정에 들어간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7월에서야 정규시즌 60경기 체제로 개막한 메이저리그는 대신 포스트시즌 진출팀을 기존의 10개 팀에서 16개 팀으로 늘렸다.

아메리칸리그(AL)와 내셔널리그(NL) 3개 지구 1~2위 팀과 이들을 제외한 팀 중 승률이 높은 4개 팀(AL 2개 팀·NL 2개 팀)이 가을야구에 참가한다.

확장 포맷의 결과, NL 중부지구에 속한 5개 팀 중 무려 4개 팀이 모두 포스트시즌 무대를 밟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올해 포스트시즌은 와일드카드 시리즈(3전 2승제)-디비전시리즈(5전 3승제)-챔피언십시리즈-월드시리즈(이상 7전 4승제) 순으로 진행된다.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는 시드가 배정돼 1번과 8번, 2번과 7번, 3번과 6번, 4번과 5번이 맞붙는다.

AL의 경우 1번 시드 탬파베이 레이스와 8번 시드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격돌하고,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2번)-시카고 화이트삭스(7번), 미네소타 트윈스(3번)-휴스턴 에스트로스(6번), 클리블랜드 인디언스(4번)-뉴욕 양키스(5번) 간 대결로 열린다.

NL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1번)-밀워키 브루어스(8번), 애틀랜타 브레이브스(2번)-신시내티 레즈(7번), 시카고 컵스(3번)-마이애미 말린스(6번), 샌디에이고 파드리스(4번)-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5번)의 대결이 성사됐다.

토론토의 에이스 류현진은 30일 막을 올리는 포스트시즌의 첫 관문인 와일드카드 시리즈 1차전에 선발 등판할 것으로 전망된다.

류현진에겐 개인 통산 5번째 가을 야구지만 지난해까지 7년간 몸담았던 다저스 시절과는 무게감이 사뭇 다르다.

다저스 시절에는 클레이튼 커쇼, 잭 그레인키(휴스턴), 워커 블러 등 경쟁한 선발 자원들과 부담감을 나눠 가질 수 있었지만, 이제는 팀의 막중한 책임을 지는 에이스로 가을 야구의 문을 열어젖힌다.

류현진의 첫 상대인 탬파베이는 최지만의 소속팀이라 한국인 메이저 리거 투타 맞대결이 성사될지 관심사다.

최지만은 지난 13일 보스턴 레드 삭스와의 경기에서 주루 플레이를



MLB 포스트시즌에 나서는 류현진(위)과 김광현.

하다 왼쪽 햄스트링을 다쳐 전력에서 이탈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비 훈련까지 소화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포스트시즌 출전에 청신호를 켰다.

세인트루이스가 힘겹게 가을 잔치에 합류함에 따라 김광현은 메이저 리그 진출 첫해에 포스트시즌 무대를 밟게 됐다.

김광현은 잭 플래허티, 애덤 웨인라이트를 잇는 팀의 3선발 투수로 빅리그 포스트시즌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감귤 묘목 분양
 종사업등록번호: 제18-서귀포-2005-20-01호

★ 보유묘목 ★

- 나쓰미(남진해)
- 세또까(천혜향)
- 감평
- 황금향
- 일남1호

한라종묘
 H.P. 010-3696-2057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앵무목, 천혜향, 왕금향, 윈터프린스, 제라온(레온),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시라향,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유라실생, 하례조생, 궁천, 궁천변이지 (2년생 이상 100% 이식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사업등록번호: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사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변이지
- 천전(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부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집니다.

·카라향 1, 4년생	·궁천변이 1, 2년생
·유라실생 2, 3, 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 3년생
·레드향(무목) 1, 2, 3년생	·한라봉 5, 6년생
·천혜향(무목) 2, 3, 4년생	·하갈 2, 3, 7, 8년생
·궁천 1, 2, 3, 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사업등록번호제수 18-2003-20-08

010-2699-2355